

황순원 소설의 이념의 문제와 경계인으로서의 글쓰기*

— 해방기 작품의 개작과정을 중심으로 —

방금 단**

차 례

1. 들어가며
2. 월남민 시각에서의 '같은 조선인'
3. 해방 전·후의 현실과 '경계의식'
4. 중간파로서의 황순원과 이념의 문제
5. 나가며

■ 국문 요약

황순원의 경계인 의식은 작가의 개인적 정체성과 관련된다. 황순원이 성장한 서북지방은 성리학과 기독교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그는 가문의 성리학적 이념과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일컬어지는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다. 또한 그의 문학적 출발이 자국의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인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과 해방 이후 월남한 실향민으로서 다른 작가와 구별되는 독특한 경계인의 정체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경계인으로서의 글쓰기로 황순원 문학의 개작과정을 새롭게 조명했을 때, 그의 작품이 탈이념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이유와 이념 이외의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했던 작가의식을 찾을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 1A5B5A07)

** 청운대 교양학부 강사

수 있다. 황순원 소설에서 이념은 최소한으로 표출되지만 권력의 영향은 피지배자들의 고통에 미시적으로 스며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굴절되어 나타난다. 황순원은 그의 작품에서 국가의 시대적 상황의 폭력성에 맞서는 대항이념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아무런 가치판단도 개입시키지 않으며 온갖 종류의 인간 삶을 보여줄 뿐이다.

작가에게 있어서 이념의 선택이 자유로웠던 해방기의 황순원의 작품을 텍스트로 삼아, 그의 소설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이념성의 문제와 경계인의 정체성을 갖은 작가의 글쓰기 방법을 통해 소설의 개작과정과 관련하여 상호연관성을 규명하려고 한다.

주제어 : 황순원, 경계인, 전재민, 이념, 개작

1. 들어가기

경계인으로서의 글쓰기로 황순원 작품의 개작과정을 새롭게 조명했을 때, 그의 작품이 탈이념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이유와 이념 이외의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했던 작가의식을 찾을 수 있다. 황순원 소설에서 이념은 최소한으로 표출되지만 권력의 영향은 피지배자들의 고통에 미시적으로 스며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굴절되어 나타난다. 황순원은 그의 작품에서 국가의 역사적 상황의 폭력성에 맞서는 대항이념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아무런 가치판단도 개입시키지 않으며 온갖 종류의 인간 삶을 보여줄 뿐이다. 거대담론, 정치적 이념, 도덕적 가치판단을 배제하는 황순원 문학의 특성이 다양한 비평의 근거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황순원이 인식하고 있는 ‘경계의식’은 체형적인 면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단순히 이념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글쓰기 양상으로도 드러난다.

황순원의 문학세계는 통상적으로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계의식’의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창작시기를 구분하면 네 가지 변모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1기는 일제식민지시기, 제 2기는 해방기, 제 3기는 한국전쟁기, 제 4기는 60년대 이후로 분류할 수 있다. 황순원은 창작과정을 통해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이념의 문제에 있어서 동화와 타협이 아니라 차별을 선택하는 작가의식을 고수한다.

본고는 작가에게 있어서 이념의 선택이 자유로웠던 해방기의 황순원의 작품을 텍스트로 삼아, 경계인으로서의 경험과 이념의 문제가 개작과정을 거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해방기에 창작된 작품은 『별과 같이 살다』(1946.11), 「술」(1945.10), 「황소들」(1946.12), 「두꺼비」(1946.7), 「담배 한 대 피울 동안」(1947.1), 「아버지」(1947.) 「목님이 마을의 개」(1947.3) 등이다. 이 작품들은 리얼리즘 시각에서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해방공간의 이념의 선택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매우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¹⁾하고 있다.

‘경계의식’은 작가의 개인사와 그의 소설의 연결고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한다. 해방공간의 다양한 문제에서 스스로 경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황순원이 그가 다룰 수 있는 주제적인 측면과 그가 취할 수 있는 작가적 입장으로, 현실적 억압의 기제와 변화과정을 그대로 작품 인물의 삶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순원의 문학은 해방공간에서 겪는 이념의 혼란에 맞서 개념적 언어, 선악, 도덕적 논증, 역사의식을 표출하기보다는 최대한 민중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데올로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데올로기가 내포하는 폭력을

1) 황순원의 작품은 발표 당시 잡지본에서부터 단행본 이후 1, 2차의 전집의 간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개작이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가 흔히 읽고 있는 작품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발행한 것은 3차 전집으로 최종본이며 개작되는 내용으로 인해, 그의 작품에서 이념에 대한 부분은 중립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황순원전집』 총6권 (창우사, 1964), 『황순원문학전집』 총7권 (삼중당, 1973), 『황순원전집』 재판본 총12권, 본고에서는 이후부터 이 전집들을 1차 전집, 2차 전집, 3차 전집 그리고 문학잡지에 실린 소설은 잡지본으로, 육문사의 『목님이 마을의 개』와 정음사에서 간행된 『별과 같이 살다』는 단행본으로 명명한다.

또 다른 이데올로기로 맞서기보다는 사실의 언어로 해방공간의 민중의 삶을 부정하게 관찰하고 기술할 뿐²⁾이다. 이러한 점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연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민을 감춤으로써 해방 공간의 사실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기의 문단은 구체적인 창작적 성과에 앞서 정치 사상적 대립이 문학의 전면에서 나섰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서 중립적인 황순원의 해방기 작품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황순원의 작품 중 해방기에 창작한 소설이 가장 많은 개작이 이루어졌다. 황순원은 잡지본과 단행본, 이후 세 번의 전집 간행본을 출간하였다. 해방기 황순원 소설은 『목넘이 마을의 개』(육문사, 1948. 12)에 실린 단편 소설과 장편 『별과같이 살다』(정음사, 1950. 2)가 원본과 차이가 나지 않는 대표적인 단행본이다. 이 소설의 원본은 잡지에 발표된 것으로서, 육문사와 정음사의 단행본이 한국전쟁 이후인 1차 전집 때부터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진다. 1차 전집부터 역사적 현실에 대한 대응양상이 급속히 위축된 경향을 드러낸다. 따라서 개작³⁾과정 연구를 통해 황순원이 해방기의 정치적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황순원의 개작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개작에 관한 연구는 『목넘이 마을의 개』에 실린 몇 작품에 국한⁴⁾된 것으로 황순원의 소설 중 이념과 관련된 개작과정을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 또한 장편의 『카인의 후예』,⁵⁾ 『나무들 비탈에 서다』,⁶⁾ 『움직이는 성』⁷⁾의

2) 이러한 점은 개작 이후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동시에 인물 중심의 삶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드러나는 작품의 현상이다.

3) 황순원은 평생 동안 자신의 작품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개작 행위를 작품의 완성도로 간주하고 있다. 황순원의 개작은 해방기 작품에만 특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창작 작품의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진 현상으로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다.

4) 김한식, 「해방기 황순원 소설 재론」, 『우리문화연구』, 2014, 510-532쪽.

5) 조남현, 「우리 소설의 넓이와 깊이」, 『문학정신』, 1989, 250-259쪽.

평론은 본고가 논의하는 시대적 범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개작연구가 초기단계임을 알 수 있는 연구들이다. 특히 황순원의 개작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진 연구는 박용규⁸⁾의 논의를 들 수 있다. 박용규의 논문은 황순원의 작품의 개작이 이념의 문제와 작가의 완성도 높은 작품을 지향하는 작가정신이라는 두 축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규의 논문이 개작 과정에 대해 충실하게 잘 다루고 있으나, 황순원의 방대하고 다층적인 소설 세계는 단일한 체계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황순원 작품이 대다수 개작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황순원 소설의 개작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본고가 연구하려고 하는 ‘경계의식’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 없다. ‘경계의식’은 작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심리적 차원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다른 작가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작가의식에 해당된다. 황순원의 해방기 작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작가의 ‘경계의식’은 첫째,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⁹⁾ 둘째, 식민지인으로서의 작가적 삶, 셋째, 해방에 따른 월남의 경험에서 생성되었다. 따라서 ‘경계의식’은 작가 자신이 체득한 시대의식으로 심리적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황순원 작품에서 ‘경계의식’은 해방 이후 남한 현실에 정주하려는 구심점 의식과 해방 후 현실과 거리를 두고 식민지시기를 회상하는 원심적 의식이 결합되어 조우된다. 그리고 이 ‘경계의식’의 저변

김주현, 「<카인의 후예>의 개작과 반공이데올로기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198-222쪽.

- 6) 김만수, 「어둠을 응시하는 아르고스의 세 시선」, 『문학정신』, 1992. 4, 140-146쪽.
- 7) 강진호, 「작가의 정체성과 개작, 그리고 평가 - 황순원 움직이는 성의 개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15, 29-61쪽.
- 8) 박용규, 「황순원 소설의 개작 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226쪽.
- 9) 황순원이 성장한 서북지방은 성리학과 기독교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그는 가문의 성리학적 이념과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일컬어지는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다. 방금단, 「황순원 소설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2-23쪽.

에는 작가가 해방기의 남한 사회에 뿌리내리려 하지만 현실에 타협 내지는 동화하지 못하고, 차별받는 이방인일 뿐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비교적 월남 준비를 착실히 해서 남한 사회로 편입된 그였지만, 정주(定住)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유다른 ‘경계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은 황순원의 해방기 작품에서 보이는 ‘경계의식’의 발현 양상과 함께 그가 개작과정을 통해 해방기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월남민 시각에서의 ‘같은 조선인’

해방기의 문학작품들은 식민지시기의 ‘떠남’의 모티프와는 다르게 ‘귀환’의 서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방기의 전재민이라고 불리는 귀환민들은 사실 월남민과 동일한 맥락에서 간주되고 있다.¹⁰⁾ 귀환을 모티프로 하는 소설들은 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전재민들의 심리에 주목하고 있는데, 전재민들은 국외나 국내에서 하나의 경계를 넘는 행위를 통해 귀환 전후의 의식상의 변화와 공간 이동에 따른 정주(定住)의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¹¹⁾에 질문을 하게 된다. 전재민들의 귀환은 공간의 이동이 단순히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지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해방되고 난 이후의 새로운 국가에 소속되려고 하는 심리적 소속감의 확보를 전제한다.

10) 해방기의 소설 「청량리역 근경」(최정희), 「혈거부족」(김동리), 「별을 헐다」(계용묵), 「월경자」(최태웅) 그리고 황순원의 해방기 작품 등에서 귀환을 하는 전재민의 처지를 월남민의 상황과 동일한 맥락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정체성은 장소간의 차이나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차이 속에서 동일성을 확인하는 훨씬 근본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소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그 장소에 대한 정체성이다. 특히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내부인으로서 경험하는가 외부인으로 경험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에드워드 쉴프, 『장소와 장소 상실』, 김덕형, 김현주, 심승희 옮김, 논형, 2005, 109쪽.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나의 위치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획득되는 정체성으로 현실의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지리적인 공간 이동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조선인’이라는 공간적 정체성을 치열하게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작가 황순원은 1946년 5월에 남한 사회로 편입한 이력을 갖고 있는 작가이다. 지주계급이었던 황순원은 그의 자전적 경향이 짙은 소설 『카인의 후예』를 통해 남으로 내려온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작가에게 있어서 해방은 기쁨과 동시에 실망과 기만을 함께 가져다 준 것으로서 인식된다.¹²⁾ 해방기의 황순원의 문학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월남체험’이라는 사실이다. 즉 월남민으로서 작가는 해방 이후 남한 사회에 정주(定住)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방인일 뿐이라는 ‘경계의식’을 소설에서 표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황순원 소설에서 전재민은 정주(定住)의 과정에서 ‘같은 조선인’이라는 인식이 깨지는 자각을 드러낸다.

작가는 「두꺼비」에서 전재민으로 귀환한 현세의 삶에 초점을 맞춰 그의 궁핍한 현실의 문제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남죽음 내 고뿔만 못하다’는 속담처럼, 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온 현세에게 고국은 살아갈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현세는 식민지시기에 평양에서 타지(북지)로 갔다가 해방 후, ‘같은 조선인’이라는 소속감을 가진 전재민들과 함께 달경 전에 서울로 돌아왔다. 식민지시기에 가난 때문에 고국에서 국외로 내몰린 전재민들에게 해방은 고국에서 ‘같은 조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에 없이 한 고국을 가진 같은 겨레라는 느낌이 서로의 가슴속을 뜨거이 흐”¹³⁾른 상태에서 돌아오지만, 당장 살길이 막막해진 현세의 이런 마음은 금세 식어버린다. 현세는 자기가 지금 ‘고국이 아니라 타

12) 원응서, 「그의 인간과 단편집 『기러기』」, 『황순원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5, 258쪽.

13) 『황순원전집』, 2권, 4권, 창우사, 1964. 36쪽.

지'에 와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어 '피난을 온 것'이라고 여길 만큼 절망하는 마음이 깊다.

그래도 현세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나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틴다. 현세는 고국에 돌아올 때 준비해온 양복을 팔아 감자를 사러 가다가 "정말 고국사람의 얼굴"¹⁴⁾을 한 친구 두갑이를 우연히 만난다. 두갑이는 현세의 전재민 처지를 이용해 세든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연극을 제안하고, 현세는 필요한 방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 소설은 단행본에서 1차 전집으로 간행되는 중 개작에 의해 현세의 친구인 두갑이의 역할이 변화된다. 단행본처럼 두갑이의 역할이 현세의 친구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1차 전집에서 두갑이의 인간성은 더 영악하고 속물화된 인물이 된다. 잡지본과 단행본에서 두갑이는 잘 아는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현세에게 연극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차 전집에서 집주인을 삭제한 결과로 인해 집주인이 두꺼비라는 추정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개작으로 인해 독자는 현세가 고국에서의 절망감과 친구에게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으로 인해 그 고통의 크기가 매우 큰 것임을 알게 된다.

- ① 고국 자신이 남 주검 내 고히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 때부터이다.¹⁵⁾
- ② 그것은 집주름 영감 들으라는 것보다도 현세와 그리고 집주인이 들으라는 소리 같았다.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나오듯이 한방에서 한 사나이가 나왔다. 키가 작달막한데다 하관이 빠른 강하게 생긴 사나이었다. 현세는 이렇게 된바에는 집주인과 대면하는게 쪽스럽다는 생각보다도, 무슨 일이 있어도 좋으니 어서 결말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우린 못나가야. 이런 장마철에 앓는 사람이 어딜 움직인단 말이야

14) 황순원, 앞의 책, 37쪽.

15) 황순원, 『우리공론』 1947.4 90쪽.

아!」 집주름영감이 인사를 시켜주어, 집주인과 현세가 통성을 하고 있는 데도,16)

위의 예문에서 강조된 인용문은 한국전쟁 이후 간행된 1차 전집에서 삭제된 내용이다. ①에서 고국이 전재민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같은 조선인’이라는 마음이 식어버린 현세의 비판의식이 개작되는 과정 중에 간결한 문장으로 다듬어진다. 또한 ②의 집주인에 관한 대목도 1차 전집에서 삭제된 결과로 인해 독자는 집주인이 두갑이라는 추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현세가 고국뿐만 아니라 친구에게까지 배신당하는 처지가 되는 것으로 작품 전체의 무게가 변화된다.

황순원은 「담배 한 대 피울 동안」에서도 전재민의 삶을 형상화해서 ‘해방’의 의미를 냉철하게 비판한다. 이 소설에서 ‘그’는 아침마다 신문을 맡아 담배 한 대를 피는 버릇으로 인해, 신문에서 <거리의 여자>라는 기사를 읽게 된다. ‘그’는 해방을 맞이하여 일본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조선 사람들이 일 년도 못되어서 다시 살길을 찾아 일본으로 밀항한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어젯밤 송암 선생과 다동 목로집에서 본 여자를 회상한다.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청년들의 놀림에도 어떤 노여움이나 불쾌감도 드러내지 않는 지친모습과 배고픔에 허덕이는 여인의 뒷모습을 떠올린다. ‘그’와 송암 선생의 헤어날 길이 없는 가난한 현실과 귀환동포의 문제가 해방기의 궁핍한 현실의 한 단면임을 알고 있는 이 소설은 해방 전이 해방 후보다 더 나았다는 작가의식을 보여준다.

‘그’는 이 ‘거리의 여자’가 신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일본에서 귀환한 동포라면 다시 밀항을 하다가 즉결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

① 재판관의 이름이 뭐냐는 물음에 피고는 원 이름은 김아무개데 해방

16) 황순원, 앞의 책, 56쪽.

전엔 하나꼬로 해방 후엔 안나로 불리운다는 대답¹⁷⁾

- ② 여기서 그는 손끝까지 다 탄 담배꽂다리를 비어뜨면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 거린다. 이런 일이 이것으로 그치지는 않으리라.¹⁸⁾
- ③ 여기서 그는 손끝까지 다 탄 담배꽂다리를 비어뜨면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 거린다. 아무런 판결이 내린대도 이런 일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얼마든지 계속하리라.¹⁹⁾

‘그’의 상상 속에서 ‘거리의 여자’는 원이름이 김아무개데 해방 전엔 하나꼬로 해방 후엔 안나로 불리운다는 대답을 한다. ①은 잡지본과 단행본에는 없는 내용으로 개작 과정에서 ‘김아무개’가 삽입된다. 하나꼬와 안나라는 외국이름을 갖기 전에 ‘김아무개’라는 이름의 ‘같은 조선인’이었다는 것은 이 작품의 비극미를 더 크게 할 뿐 아니라, 여급과 단서 생활을 했던 김아무개라는 여성의 삶이 이 땅위의 혼한 딸들에게 일어난 가슴 아픈 사연임을 전달한다. 또한 ‘그’는 국가의 처벌에도 이 땅위의 ‘김아무개’가 궁핍함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건 밀항이 계속하리라고 예견한다. ③의 잡지본의 내용이 ②의 1차 황순원 전집에서 개작된 내용으로 인해 ③에서 ‘그’가 느끼는 해방기의 사회제도와 궁핍함의 정도가 ②의 경우에는 그 뜻이 약화되는 것으로, 현실 문제에 대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비판력을 1차 전집(한국전쟁 이후)에서부터 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별과 같이 살다』에서 산옥이라는 인물은 작가에게 있어서 주인공 곰너보다 더 애정이 가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황순원은 정음사판인 장편 『별과 같이 살다』²⁰⁾의 내용을 개작할 때 산옥이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개작했음과 아울러 작가 스스로 소설의 중간에 화자를 자처하며 산옥이의

17) 황순원, 앞의 책, 126쪽.

18) 황순원, 앞의 책, 127쪽.

19) 황순원, 『신천지』, 1947.1, 180쪽.

20) 「곰」(『협동』, 1947, 3월)과 「곰너」(『대조』, 1947, 7월)의 일부가 1950년 장편 『별과 같이 살다』로 발행되었다.

이야기를 “곳에 따라서는 좀 첨가하여 상세히 적기로 한다”²¹⁾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산옥은 한명인에 의해 “이 애가 치마는 들렀어도 남자 못지 않게 기상이 좋다”²²⁾는 말을 듣는 인물로 개작된다. 산옥이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은 ‘옳은 길을 걷기에는 아무래도 맞지 않는 몸’이라는 자의식 때문이다. 혼자 몸이 된 산옥은 해방을 맞아 돌아갈 곳이 없다. 그래서 주심이와 함께 만주서 돌아오는 귀국 동포를 구호하는 ‘민호단’으로 들어가지만, 반목, 강요, 냉대 속에 살게 된다. 낮에는 행동을 감시받고 밤에는 야학에 참여해야만 한다. 식민지시기에 색주가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산옥에게 해방기의 현실은 또 하나의 ‘가막소’ 같은 것으로 인식된다. 해방이라는 기쁨이 산옥에게는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방이 ‘같은 조선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시각의 단일성에서 벗어난 작가의식을 보여주고 있다.²³⁾

만주에서 돌아올 부모를 기다리는 주심이와 돌봐줄 하르반이 있는 곰녀와 다르게 산옥은 혼자다. 사랑하는 귀돌이와 오빠 모두에게 버림받고 병들은 산옥에게 해방은 식민지시기보다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 산옥은 민호단에서 생활하면서 해방과 함께 고국으로 귀환하는 전재민의 사연과 마주하게 된다. 해방이 되자 기쁜 마음에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온 모자의 이야기, 거지가 되어서라도 ‘같은 조선인’은 도와줄 거라는 기대로 돌아왔지만 거지라고 놀림만 받는 청년, 국경을 넘어서면서 거느린 식솔의 손을 일부러 놓고 혼자 돌아온 남자가 ‘민호단’에서 다시 가족과 만나

21) 황순원, 『별과 같이 살다』, 『황순원전집』 제4권, 창우사, 1964, 85쪽. 이 부분은 개작하기 전인 정음사 단행본에서도 나온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개작 이후에 산옥이의 시각을 통해 신흥지주인 한명인이 토착지주인 김만장의 토지를 차지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하는 것으로서, 작가가 산옥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3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2) 황순원, 위의 책, 98쪽.

23) 진홍남, 소형수, 「해방기 황순원 현실 대응력 - 『별과 같이 살다』를 중심으로」, 『영주어문학회』, 2007, 175쪽.

게 된 사연을 듣고, 남자를 구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재민의 딱한 처지가 ‘같은 조선인’ 모두에게 해방이 좋은 것만이 아닌 것 같다’는 혼란한 감정을 곰녀에게 털어 놓는다. 또한 현실을 무시한 채 강요되는 이념은 산옥이의 삶을 무게를 더욱 가중시킨다. 이로 인해 산옥은 해방기의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만다.

3. 해방 전·후의 현실과 ‘경계의식’

황순원의 해방기의 작품은 지주의 횡포와 착취로 인해 농민들이 자신들의 의지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고향에서 분리되는 삶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해방기의 농민의 삶이 해방 전보다 달라진 것이 없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해방기의 사회상을 탁월하게 묘사한다. 월남민의 한 사람²⁴⁾으로서 포화상태에 이른 남한 생활에 정주(定住)하기 어려웠던 현상이 주로 주거문제, 식량문제를 포착하여 당대의 문제적 현실을 전달해주고 있다.²⁵⁾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사회체제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주거공간으로서의 집과 생산터전으로서의 토지의 문제가 해방기의 대다수의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집과 토지는 인간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망에 해당되는 것이다. 고국이 해방은 되었다지만 당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전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역사적 조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²⁶⁾에서 맞

24) 황순원이 월남민으로서 이념에 의해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로 인해 자신이 속한 공간에 대한 민감한 의식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된다. 경계를 넘어 정착하는 과정 중에 보여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현실의 문제들을 바탕으로 정체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25) 방금단, 앞의 논문, 123쪽.

26) 박은태, 『『별과 같이 살다』에 나타난 소설 구조의 역사적 의미』, 『비평문화』 제17호, 한국비평문학회, 2003, 122쪽.

이한 무력한 조국의 상태는 해방이 조선인에게 기쁨과 동시에 실망과 기만을 가져다 준 것임을 알려준다.

황순원의 해방기 소설은 식민지시기에 절대적 빈곤에 빠진 농민들이 비자발적으로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도 국내에 남아 계속 농사를 짓던 농민들마저 해방기에 이르러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작가는 식민지시기와 해방기를 나누어 인간의 삶을 비교하는 ‘경계의식’을 드러낸다.

「목넘이 마을의 개」는 식민지시기 ‘절대적 빈곤에 빠진 농민들이 북간도’로 삶을 연명하기 위해 떠나는 길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신둥이를 발견하는 사람이 잘 키워줄 것이라는 바람으로 나무에 묶어두고 떠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에 대한 이야기이다. 신둥이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목넘이 마을에 흘러 들어와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손을 번성시킨다. 「목넘이 마을의 개」에서 신둥이 이야기는 비단 개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지주 형제의 비인간성과 소작인의 곤궁한 일상까지 확대해서 담고 있다. 따라서 「목넘이 마을의 개」에서는 식민지시기의 농촌의 문제적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개작과정으로 인해 전혀 다른 뜻을 담고 있는 소설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넘이 마을의 개」는 발표 당시 액자식 소설로, 작품의 말미에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사연이 추가되어 있다. 이 사연은 해방 된 이후 우연히 종로 거리에서 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중학생 무렵에 외가가 있는 ‘목넘이 마을’에서 간난할아버지에게 들은 신둥이 이야기를 회상하게 되었음을 밝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오늘의 늙은이는 또 간난할아버지와 왜 그리 틀림이 심한것일 까. 터석부리 수염만해도 간난이할아버지의 것에 비겨 윤기라곤 통 없었다. 그 속에서 미소라곤 영 지어질것 같지 않았다. 그밖의 체격의 차이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 지게위에 사내에는 옛날의 어린 간난이에게 비겨도

약골 그것이었다.(중략) 신동이 개는 그것을 팔아 약값이라도 보태려고 데리고 온 것이고.²⁷⁾

위의 인용문의 내용이 실린 잡지본은 소설 말미의 3면 정도의 삭제로 인해, 1차 전집에서 해방기 현실의식은 약화되고 ‘식민지시기 신동이를 중심으로 한 마을의 지주와 소작인의 일상’의 소재를 다룬 우화로 변화된다. 그러나 잡지본의 내용으로 작품을 살펴보면 해방기의 궁핍함이 식민지시기보다 더 심한 것임을 전달하려고 했던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우화소설로만 보이던 「목님이 마을의 개」는 삭제된 내용이 실제 황순원이 드러내고 싶어 했던 작가의식이자 주제 의식임을 추론할 수 있다.

황순원 소설 「목님이 마을의 개」, 「꿀벌(집)」²⁸⁾, 「황소들」, 『별과 같이 살다』는 농민의 궁핍한 현상의 원인이 지주계급의 착취에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황순원 소설에서 흥미로운 것은 토착지주에서 신흥지주로의 변화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는 토착지주에서 신흥지주의 변화과정을 개작을 통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신흥지주의 특징을 토착지주보다 훨씬 세련된 영악함을 갖춘 인물로 묘사한다. 식민지시기 농촌의 봉건적인 토지 소유체제가 해방 이후 시대가 요청하는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흥지주에 의해 파행성을 면하지 못하는 실상을 다루고 있다. 『별과 같이 살다』와 「꿀벌」은 토착지주에서 신흥지주로의 변화과정을 다룬 작품으로 토착지주가 식민지시기부터 사람들의 인심을 잃어가는 것에 주목하는 한편 해방기에도 토착지주보다 더 교활한 신흥지주가 계속해서 농민의 삶을 착취하게 되리라는 작가의식을 드러낸다.

『별과 같이 살다』는 1차 전집의 많은 부분의 개작은 토착지주 김만장의 토지가 신흥지주 한명인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27) 황순원, 『개벽』, 1947. 3, 743쪽.

28) 「꿀벌」은 1947. 4월에 신조선에 실린 내용이 1948년 육문사에서 발행된 『목님이 마을의 개』에 「집」으로 제목이 바뀌어 실렸으나 내용상의 변화는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살펴볼 수 있다. 김만장은 전형적인 지주 유형으로 가문에 대한 우월감과 현실감이 뛰어난 인물이며, 소작인에게 철저히 계산적이다. 반면 한명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격화되어 있어서 두려운 존재다. 어머니와 도깨비와의 정사로 태어난 인물이라거나 복도깨비에게 돈을 꾸어 준 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한명인의 일화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한명인의 이야기는 신빙성이 부족해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는 항상 엇갈린다. 귀돌아버지의 무덤에서 원혼을 만나 빛을 못 갚아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명인 혼자라는 것, 소작인의 딸인 산옥이를 군수의 수청을 들게 하려고 했다는 것, 귀돌아버지의 빛 때문에 귀돌이네 모자가 갓은 고생을 다해도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허위성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내용은 정음사에서 발행된 『별과 같이 살다』의 단행본에 실린 줄거리이다. 단행본의 김만장과 한명인은 지주계급의 전형성을 띄고 있어서, 곰녀나 산옥이가 착취당하는 농민의 딸로 형상화되는 것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별과 같이 살다』는 1차 전집의 개작 과정을 통해 한명인과 관련된 많은 내용이 삽입되고, 이로 인해 서사가 변화되고 사건이 확대된다. 1차 전집에서는 지주이면서 기득권적인 계층 유지에 급급한 김만장과 신분상승을 하기 위해 김만장에게 도전해가는 한명인의 행동이 추가된다. 개작된 내용은 토착지주보다 신흥지주가 더 영악하고 계산적이라는 것, 신분이 미천하다는 것, 교활하다는 것 등을 면밀히 다루고 있다. 한명인은 금광 개발에 휘말린 김만장의 큰 아들이 아버지의 인감을 도용한 것을 짐작하면서도 돈을 빌려준다. 또한 군수가 한명인의 돈을 노려 본처와 이혼하고 김만장의 둘째딸과 혼인하길 원하자, 그를 사위로 얻어 신분상승을 꾀한다. 그리고 김만장의 땅을 사들이는 데에 군수(사위)의 힘을 빌린다. 그는 신분적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김만장에게 평교(平交)를 하자고 하면서 ‘먼저 자네라고 호칭해 부’른다. 이는 한명인이 이전에는 감히 김만장에게 할 수 없었던 말과 행동들이다. 이로 인해 김만장은 심한 모욕감

을 느낀다. 한명인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는 개작된 1차전집 내용의 주를 이룬다. 한명인의 정체는 색주가에서 일하는 산옥이에 의해 외부로 알려진다. 김만장의 재산이 한명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증인으로 서의 역할을 산옥이가 담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는 산옥이에게 애정을 가지고 개작의 의미²⁹⁾를 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토착지주에서 신흥지주로의 변화과정은 「꿀벌」에서도 재현된다. 그러나 「꿀벌」은 『별과 같이 살다』에서처럼 두 지주계급의 변화과정보다는 두 지주에 의해 자작인에서 소작인으로 전락해가는 막동이네의 비애 쪽으로 더 치중되어 다루어진다. 토착지주인 민창호에 비해 신흥지주인 전필수는 가난한 소작인 출신으로 토지에 대한 욕망은 거의 생득적이다. 그는 해방 직후 혼란기를 틈타 일본인의 물건을 사고파는 고물상으로 돈을 모아 치부한 만큼 사회를 보는 눈과 사람들을 다루는 생각이 일반인들과는 다르다. 전필수는 민창호가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 서울로 간 이유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인심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는 전 지주와는 다르게 마을의 연장자들에게 존대를 하고 술을 대접하는 등 “모든 면에서 한 수 지고 들어가”³⁰⁾면서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계산적인 행동을 한다. 이는 두 지주와 농민의 토지소유방식이 해방이라는 변혁기에도 변함이 없으며, 신흥지주의 자본축적과정이 파행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예견하는 작가의식이다. 기회주의자인 전필수를 민창호보다 미천하고 교활한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해방을 맞아 정직하게 돈을 벌어 궁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농민(막동이네)의 삶이 출구가 없는 현실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9) 작가는 개작과정에서 산옥이의 비중을 많이 늘린다. 그리고 이러한 산옥을 통해, 김만장과 한명인의 거래를 외부로 알려지게 한다. 또한 산옥이가 사랑했던 귀돌이네와 산옥이가 색주가에 몸담게 된 사연이 한명인에게서 비롯됨을 알리고 있다. 그런 만큼 개작을 통해, 꿈녀보다는 산옥이가 훨씬 입체적인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30) 황순원, 위의 책, 72쪽.

「꿀벌」은 단행본에서 1차 전집으로의 개작과정 중 전필수가 토지에 애착을 갖게 된 배경이나 생각을 축소시켜 비열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막동이 아버지의 죽음을 확대시켜 농민의 애환을 증대시킨다. 이 과정 중 민감한 현실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다.

전필수는 이번에는 마흔편 쪽에 앉았는데 차돌이형에게, 농민조합 창립 일주년 기념일이 언제인지 그날은 또 술 한 통이를 내겠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전필수는 기회를 보아 자기도 조합원으로 넣어 달라기까지 할 참이었다)³¹⁾

「꿀벌」은 좌익계열의 잡지로 위 인용문은 개작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이다. 잡지본과 단행본에서 해방기의 좌익 주도의 통일전선체의 하부조직이라 할 수 있는 농민조합이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1차 전집부터 위의 인용 대목을 삭제하고 있다. 이것은 1차 전집이 한국전쟁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서 다분히 반공이데올로기가 강제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삭제된 내용은 작품의 개연성을 보강하기 위해 삭제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괄호 안의 구절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지주가 조합원이 되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상황 설정이기 때문이다.³²⁾ 이와 같은 삭제로 인해 작품의 미학성이 살아나고,³³⁾ 작가의 이념성은 사라진다. 또한 시대에 따른 지주계급의 비열함과 그로 인해 궁핍함을 면할 길이 없는 농민의 비극적 삶만이 강조된다.

31) 황순원, 『신조선』, 1947. 106쪽.

32) 박용규, 앞의 책, 9쪽 참조.

33) 해방기 작품의 개작이 반드시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삭제된 내용이 없어서 작품의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삭제로 인해서 문장이 훨씬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이는 황순원의 작품이 예외 없이 거의 개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4. 중간파로서 황순원과 이념의 문제

황순원에게 있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험해야 했던 월남 체험은 고향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함께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금 뿌리내리기를 시도해야 했던 지난한 과정이었다. 작가로서 남한 사회의 호명 여부가 황순원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호명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는다는 것, 북한 사회를 떠난 그로서는 남한 사회의 주변부로 위치 지워진다는 것에 대한 막연함, 두려움이 정체성 형성에 억압으로 작용한다. 비록 남한에서 교수와 작가의 신분을 갖고 있던 그것이지만 반공이데올로기가 득세하던 남한 사회에서 월남 실향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끝없는 문제의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³⁴⁾ 그는 해방기에도 이념적인 면에서 어느 한쪽에도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에 그를 문학사에서 중간파로 간주하는 경계인 작가로 분류한다.

황순원의 작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기 작품에서 가장 많은 개작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전쟁 이후 간행된 1차 전집에서부터 이념적 성향의 흔적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당시 남한 사회에서 득세하던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 하에 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³⁵⁾가 된다. 또한 월남 작가로서의 독특한 존재적 특성³⁶⁾과도 관련되는 문제³⁶⁾

34) 방금단, 앞의 논문, 26-29쪽 참조.

35) 실제로 작가 황순원은 월남한 작가 중 드물게 <문학가동맹>에 참여했던 좌파적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방기 소설 중 <아버지>와 <황소(들)>는 문학가동맹 기관지인 잡지 <문학>에 실렸다. 또한 <꿀벌>이나 <암콧>이 실린 잡지인 <신조선>과 <백제>도 좌익 인사들이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던 잡지였다. 그러나 월남 이후 중도 좌파적인 성향을 보이던 황순원이 당국에 자수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한 이후, 조연현 등의 우익문인들의 배려로 <문예> 등의 잡지에 소설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적 행보를 보인다. 조연현·강진호 엮음, 『문예시대』, 『한국문단이면서』, 깊은샘, 1999, 366-367쪽.

36) 엄희경, 「중도좌파적 사상의 흔적 지우기」, 『인하어문연구』 제7집, 2006, 262쪽.

이며, 남한 사회에서 작가로 살아남기 위한 한 방편이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술」은 해방 이후 황순원이 쓴 첫 단편으로, 그가 월남을 하기 전인 1945년 10월에 탈고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해방기의 북한 지역에서 있었던 적산 가옥, 공장과 관련된 소유와 배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나가 무라 양조장에서 주임서기로 15년 간 근무한 준호는 해방 후 노동자 대표로 지배인 사택과 양조장을 접수하게 된다. 그가 지배인 사택에 입주할 때 만 하더라도 건섭에게 듣던 대로 일본적인 것을 일소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점차 가진자의 삶에 익숙해지면서 일본인과 다를 바 없는 지배자의 식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해방직후 양조장을 지켜냈다는 보상심리로 양조장에 대한 소유욕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대립으로 갈등하다가 스스로 자멸하고 만다.

이 작품에서 준호의 욕망은 술을 매개로 해서 드러난다. 처음에는 양조장 종업원들과 나누려던 술을 준호가 혼자 마시면 마실수록 그에 비례해서 소유욕이 더욱 강해지는 욕구가 생겨난다. 따라서 술을 마시는 준호에 대해 독자는 부정적 인물로 준호를 비판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해방을 맞이한 북한의 현실적인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인물로 건섭을 통해 사회주의 관념론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개작을 통해 건섭에 관한 부분은 거의 삭제한다.

이게 모두 준호 자기 들으라고 하는 말이리라. 그러나 사실은 건섭이가 먼저 양조장 안에 있는 술이란 우리들 혼자서 손 대일 것이 못된다는 말을 하여, 자기도 따라 술을 손을 못 대게 한 것이니, 그것이 잘못이래도 비단 자기 혼자서 잘못은 아니다. 한데 지원을 자기 혼자에게만 돌리는 것 같다. 사실은 종업원들이 하는 말은 준호도 준호이지만은 조합에 드나드는 건섭이가 듣고 조합에 가서 그런 말이라도 하라는 말이 더 많았고, **건섭이는 또 그런 뜻을 다 알고 있어 사실은 오늘 준호 보고, 다른 의론 할 일도 있고 하니 내일 저녁에 모이자고 한 것도, 별다른 게 아니고 여러 중**

업원이 모인 데서, 이제 조합을 거쳐 지금 양조장 재고되어 있는 술을 얼마큼이라도 자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말을 함과 함께, 근본 문제인 앞으로의 운영문제를 어떤 한 사람의 손아귀에 넣어버릴 게 아니라 우리들의 조합의 손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는 데 있었다.³⁷⁾

위의 강조된 인용문은 개작 과정 중 삭제된 내용으로서 건십이가 다른 노동자들에게 앞으로 양조장 경영을 조합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발언이다. 건십이는 준호와 대립되는 인물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만 취약한 사회의식에 비하여 현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인식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점은 해방 공간에 대처하는 일반 적인 두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해방 공간의 사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1차 전집에서 위의 인용문의 삭제는 남한의 강제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삭제되었거나 아니면 이북의 사회주의 사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되는 이유는 한국전쟁 당시 황순원의 동생이 통역장교로 복진하는 국군을 따라 평양에 갔을 때, 월남하지 않는 삼촌들이 처형되거나 실종³⁸⁾된 것으로 인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아버지」라는 소설의 개작과정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황순원은 남한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전적인 소설의 경향이 보이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 데상」(1959), 「내고향 사람들」(1961)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안 내력을 역사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향민의 처지이면서도 고향을 이미 훼손된 장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 간절한 회귀의식

37) 황순원, 『신천지』, 1947. 4, 132쪽.

38) 원응서, 앞의 책, 257쪽.

을 드러내지 않는다. 「아버지」 또한 한국전쟁 이후에 개작이 이루어졌는데, 서울에서 고생하는 부모님을 뵙고서 자신의 월남에 대해 후회하는 대목이 삭제되었다.

아버지 역시 그러시다. **이복에 그냥 계셔서, 그 계획 하시던 농촌 학교를 세우고 일을 하신드든가, 또는 여지껏 거의 농민과 같은 입장에서 해오던 농사일로 농촌을 지도하고 계신드든가,** 그럴수도 있었을 것을, 이 잘난 아들이 서울로 모셔다 놓고 이 고생만 시키는 것이다.³⁹⁾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설화하려는 생각에 삼청동으로 찾아간 ‘나’는 아프신 어머니를 보고 부모님을 모시고 월남한 사실에 대해 후회한다. 이 부분은 과거 3·1 운동을 하시던 아버지가 그냥 복에 계셨으면 농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을 ‘나’의 강요에 의해 모시고 와서 고생만 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나’의 강요는 남한 사회에서도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⁴⁰⁾ 부모님을 설득해서 월남했지만, 막상 서울에서의 생활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꿈쩍 못하는 꼴”⁴¹⁾로 월남하기 전에 가졌던 포부가 남한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는 조선문학가 동맹의 기관지인 『문학』에 발표된 작품으로 3·1 운동과 대구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파악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구 사건은 1946년 10월에 일어난 대구 인민항쟁으로, 식민치하에서 일어난 3·1운동과 미군정하에서 일어난 10월 인민항쟁을 동일하게 파악하는 견해가 들어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당시 조선 문학가 동맹의 문학운동·창작상의 방향 노선이었고 더 나아가 미군정 하의 조선 공산당의 정치 진

39) 황순원, 『문학』, 1947. 2, 26쪽.

40) 황순원, 위의 책, 26쪽.

41) 황순원, 위의 책, 26쪽.

술과 관련⁴²⁾되어 있어서 좌파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1차 개작 과정에서 3·1 운동과 대구사건은 3·1운동과 신탁통치를 하나의 동일한 사건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나’는 이 신탁통치에 대해서 다소 중립적으로 견해를 드러낸다. 개작 전의 잡지본에서는 3·1 운동이 “무단 정티에 견디다못해 일어난것처럼, 요새 다시 그때와는 어떤 무단덕인 것이 우리들을 자꾸만 억눌러 견디다 못해”⁴³⁾ 10월 인민항쟁이 일어났던 것으로 되어있으나, 개작 후엔 “신탁통칠 찬성해야 할지 반대해야 할지”⁴⁴⁾라고 다소 모호하게 처리하면서 이념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중립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황순원은 「아버지」에서 3·1 운동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봤던 10월 인민항쟁을 같은 해 「황소들」(1947)을 통해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의 핵심은 식민지시대에 시작된 공출이 해방이 된 이후 미군정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함과 그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민중들이 항쟁이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 작품의 배경인 충주는 당시 충청도 지역에서 농민항쟁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곳이다.⁴⁵⁾ 작가는 열세 살 먹은 바우의 시각에서 현실적 억압을 분노로 표출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우직한 황소들로 묘사한다. 바우는 잡지본과 단행본에서 열네 살이었으나, 1차 전집에서 좀 더 어린 열세 살로 나온다. 바우의 나이가 열세 살이 됨으로서 이념과는 무관한 어린아이의 시선이 된다. 이로서 항쟁에 참여자로서의 바우가 아니라 항쟁을 보고 듣는 차원에서 전달자로서의 바우의 역할이 강조된다. 그리고 작가는 이 바우의 시선에 의해 일제와 지주 그리고 해방 후의 미군정이 모두 농민을 수탈하는 지배계층이었음을 알리고 있다.

42) 엄희경, 앞의 책, 256쪽.

43) 황순원, 앞의 책, 226쪽.

44) 황순원, 앞의 책, 135쪽.

45) 같은 책, 260쪽.

① 이래 저래 다같이 죽을 우리여. 이대루 나가단 필경은 죽은 목숨여. 우리가 무어 공출을 앓겠다는것은 아니여. 정말이지 앞으로의 공출은 다은 사람 아닌 우리 조선사람끼리 먹을게 아니여? 너나없이 누가 공출을 앓겠다 하여? 그저 정도가 있는게여. 우리들 양식꺼리마저 끊어가면 쓰느냐 말여. 그 광속에다 낱알섬을 가득히들 들이썩 두구 몰래 일본이나 다른 데루 팔아먹는 사람은 내버려두구 말여. 그러지말구 먼저 그런 광문을 열어 공출을 시켜야 하는거여. 그래 그렇게 할맘은 앓구 그 보기만 해두 무섭고 싫은 물건을 가지구 왜 하필 불쌍한 우리만 못살게 구는지 알수없는 일이며. 부르짖음은 모두 동리 사람들이 벌써부터 동리에서 하던 말들이다.⁴⁶⁾

② 이대루 가단 아무래두 다 굶어죽을 목숨여. 누가 공출을 안하겠다는 건 아니여. 공평하게 해달라는 거지. 어떤 사람의 광 속에 쌀가마니를 가득 들이썩아놓구 몰래 일본이나 다른 데루 팔아먹게 왜 내버려두느냐 말여. 밤낮 없는 사람들만 들볶아댔자 뭐가 나올거여. 아무래도 이대루 가단 다 죽을 목숨여. 이 울부짖음은 모두 동네사람들이 벌써부터 하던 말이다.⁴⁷⁾

「황소들」은 바우가 하룻밤에 겪은 일화로 황소가 호랑이를 이긴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소설이다. 위의 인용문은 바우가 들은 동리 사람들의 말이다. 이 말을 통해 농민들의 분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있다. ①의 잡지본의 내용은 공출이 미군정의 정책에 의한 것이며, 이는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총부리를 가지고’ 불쌍한 농민들만 못살게 하는 것에서 민주항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②의 1차 전집의 내용은 공출 문제가 공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만 드러날 뿐이지, ‘총부리를 가지고’ 농민을 위협하는 내용은 삭제된다. 즉 ①이 해방기의 미군정의 정책을 비판하

46) 황순원, 『문학』, 1947. 7, 30쪽.

47) 황순원, 앞의 책, 98쪽.

고 있는 것이라면 ②는 가진 자가 더 많이 내야 공평한 공출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된다. 이로서 작가가 이념성은 약해지고 해방 전보다 더 심하게 수탈당하는 농민의 생활상은 부각된다.

5. 나가기

본고는 황순원 소설과 작가와의 문학적 연결고리로 경계인으로서의 작가의식을 살펴보았다. ‘경계의식’으로 해방기 황순원 문학을 살펴보았을 때, 작가가 이념의 문제에 있어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태도는, 한국만의 역사적 상황과 그에 따른 작가의 삶이 서로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순원은 남한 사회에 작가로 정주하기 위한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불만을 ‘경계의식’에 투영하여 해방기의 현실을 작품으로 형상화한다. 해방기에 그가 보여준 좌파적 성향과 보도연맹의 가입 등의 일관되지 않은 행동으로 이념의 문제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가적 행동은 월남민으로서 남한 사회에 살아남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황순원은 1차 전집에서부터 이념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을 개작한다. 이는 당시 한국사회에 강제된 반공이데올로기를 의식한 작가적 자세이다. 그리고 해방공간의 사실성에 집중하여 궁핍한 인간 삶을 선악의 논증이나 개념적인 언어보다 우위에 두고 이념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인간의 삶임을 전달한다.

황순원의 해방기 작품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작가가 경험한 월남과 그로인해 갖게 되는 정체성의 문제이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험해야 했던 월남체험은 작가에게 있어서 고향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함께 남한 사회에 뿌리내리기까지 힘든 과정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작가는 자신만의 창작 방법을 가지고 월남민으로서 해방기에 느꼈던 현실 인식을 그가 창작한 작품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표출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북에서 이남이라는 하나의 경계선을 넘으며 하나의 고국을 가진 사람이라는 소속감과 희망을 품고 남한 사회에 편입하려 하지만 자신이 살던 기반을 떠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순탄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점은 해방기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두꺼비」의 현세처럼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절실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황순원의 작품에서 해방기가 식민지시기보다 훨씬 더 살기 어려운 사회현실이라는 작가의식이 드러난다. 작가는 해방기와 식민지시기를 비교하는 ‘경계의식’을 드러내는데, 해방이라는 것이 기쁨보다는 좌절과 기만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한다.

황순원은 해방이 ‘같은 조선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다양한 사연들을 갖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하여 ‘같은 조선사람’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돌아오지만, 고국은 이전시대를 뛰어넘은 현실적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이들을 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제민들은 현세처럼 고국에 대한 애정은 식어버리고 ‘거리의 여자’처럼 다시 살기 위해 밀항을 하거나 색주가의 산욕이처럼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하고 만다.

이러한 사실들은 식민지시기에 고향을 떠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해방의 불합리한 사회적 조건들은 국내에 남아있던 농민들의 삶 또한 구속한다. 작가는 식민지시기부터 지속되어왔던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해방기에도 여전히 계속되면서 농민의 삶을 착취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토착지주와 신흥지주의 변화과정으로 소설에서 다루고 있다. 토착지주가 전형적인 지주유형이라면 신흥지주는 이에 덧붙여 미천한 신분에 교활하고 이중적인 사람으로 형상화한다. 따라서 더 교묘해지는 지주유형으로 인해 해방이 된 이후에도 농민의 삶은 출구가 없는 현실임을 예견한다.

해방기의 황순원 소설이 민중지향적이라고 평가받는 것에는 역사적 사

건을 바라보는 작가의식 또한 들어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3·1운동과 10월 민주항쟁을 동일한 사건으로 취급한다거나, 10월 민주항쟁을 소설화하여 문학가동맹의 지침과 같은 방향의 좌파적 성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북에 있는 친지들이 처형되거나 실종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 고향에로의 회귀의식을 드러내지 않는다. 또한 작가로서 보도연맹에 가입하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의 소설에서 진보적 성향은 완전히 사라지고 주변부의 소서사를 천착하기 시작한다.

황순원은 한국전쟁 이후에 간행된 1차 전집에서부터 이념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거의 삭제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개작이후의 황순원 소설은 이념에서 완전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황순원의 해방기 소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보면 황순원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월남민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남한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민감한 정치적 사안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작가적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념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해방기의 황순원 소설에서 진보적 성향은 개작을 통해 삭제되어 은폐된다. 그리고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삶을 작중인물의 굴곡진 삶을 통해 보여준다.

■ 참고 문헌

- 황순원, 「술이야기」, 신천지, 1947. 4.
 _____, 「아버지」, 문학, 1947. 2.
 _____, 「꿀벌」, 신조선 제3호, 1947. 4.
 _____, 「독거비」, 우리공론, 1947. 4.
 _____, 「황소들」, 문학, 1947. 7.
 _____, 「담배 한 대 피울 동안」, 신천지, 1947. 9.
 _____, 「목님이 마을의 개」, 개벽, 1948. 3.
 _____, 「꿈」, 협동, 1947. 3.
 _____, 「꿈녀」, 대조, 1947. 7.
 _____, 『목님이 마을의 개』, 육문사, 1948.
 _____, 『별과 같이 살다』, 정음사, 1950.
 _____, 『황순원전집』, 2권, 4권, 창우사, 1964.
 _____, 『황순원문학전집』, 4권, 6권, 삼중당, 1973.
 _____, 『황순원전집』, 2권, 6권, 문학과지성사, 1989.
 _____, 「인터뷰기사」, 신동아, 1966.4.
- 강진호, 「작가의 정체성과 개작, 그리고 평가 - 황순원 <움직이는 성>의 개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29-61쪽.
- 김만수, 「어둠을 응시하는 아르고스의 세 시선」, 『문학정신』, 열음사, 1992, 140-146쪽.
- 김주현, 「<카인의 후예>의 개작과 반공이데올로기의 문제」, 『민족문학연구』,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198-222쪽.
- 김한식, 「해방기 황순원 소설개론」, 『우리문학연구』, 경인문화사, 2014, 510-532쪽.
- 박은태, 「『별과 같이 살다』에 나타난 소설 구조의 역사적 의미」, 『비평문화』 제 17호, 한국비평문학회, 2003, 122쪽.
- 박용규, 「황순원 소설의 개작 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226쪽.
- 방금단, 「황순원 소설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 22-123쪽.
- 조남현, 「우리 소설의 넓이와 깊이」, 『문학정신』, 문학정신사, 1988, 250-259쪽.
- 조연현, 강진호 엮음, 「문예시대」, 『한국문단이면사』, 깊은샘, 1999, 366-367쪽.

원응서, 「그의 인간과 단편집 『기러기』」, 『황순원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5, 257-258쪽.

엄희경, 「중도좌파적 사상의 흔적 지우기」, 『인하어문연구』 제7집, 인하어문연구회, 2006, 256-262쪽.

전홍남·소형수, 「해방기 황순원 현실 대응력 - 『별과 같이 살다』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영주어문학회, 2007, 175쪽.

■ Abstract

**Hwang Sun - won novel's writing as a matter
of strategy of ideology gyeonggyein**

— Focusing on the work of a liberation of gaejakwajeong —

Bang, Geumdan
ChungWoon Univ.

The consciousness of mr Hwang Sun-won' s liminality is connected with the personal identity. Neo- confucianism and christian culture had been coexisted in the northwest ward region where mr Hwang Sun-won had grown.

He had been grown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o- confucianism ideology which his family had kept and christian idea called as protestantism. Because he had a literary start with experience of colony people and displaced person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he had kept a special identity as liminality distinguished from other persons.

When the adaption process of Hwang Sun-won literature was illuminated as the writing by liminality, we can catch the reason why his works is out of ideological category and his writer' s consciousness why he had tried to capitalize another issue except ideology. Even though the ideology is shown in his works at least, the influence of authority is permeated into the pain of peoples, not subject, and shown through the distortion on diverse ways.

Mr Hwang Sunwon had not presented a counter ideology in his

works against a violence showing a government' s periodical state of affairs and had not intervened any kind of value decision, and had only shown various types of human life.

With taking as text Hwang Sun-won' s works at the period of literature when the choice of ideology was free in writers' case, I have tried to inquire the interrelationship of ideological issue shown in his works with the adaption process of novels through writing manner of writers having the identity of liminality.

Key words : Hwang Sun-won, liminality, refugees, ideology, adaption

투고완료일 : 2017. 5. 7. 심사완료일 : 2017. 6. 5. 게재확정일 : 2017. 6. 7.